

## 도서상품권 발행 허용에 거는 기대

출판계의 '숙원'이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행여부가 출판계 안팎의 깊은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도서상품권 발행이 최근 재무부 당국에 의해 공식허용됐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발행이 허용되는 도서상품권은 "액면 2만원 범위 안에서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관련단체가 발행"한다는 것인데, 이로써 지난 75년 과소비 조장을 이유로 전면금지됐던 상품권 발행이 도서상품권에 한해서는 허용된 셈이다.

물론,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해준 것일 뿐 그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됐던 출판경영자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처럼, 가령 도서상품권 발급사를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를 비롯해 상품권발행에 따르는 공탁금의 은행지불보증으로의 대체 및 인지세 감면 문제, 그리고 도서상품권의 실제적 유통을 위한 가맹점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

이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출판계의 중지를 한데 모으는 일일 것이다. 도서상품권 발행이 출판계 '전체'가 바랐던 일이라면, 사소한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전체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출판계의 역량결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엄연히 상존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이다.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더 많은 '예외' 인정과 '특별대우'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는 도서상품권 발행이 허용됐다는 사실보다는, 도서상품권 '만' 발행을 허용해준 정부당국의 '예외성' 인정에 더 큰 기대를 건다.

그같은 예외성 인정은, 업계의 단순한 이윤추구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독서운동이란 측면에서 도서상품권이 이해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도서상품권은 현행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받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가치교환권'으로 이해될 필요 또한 절실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실상 상법상의 잣대가 '원칙'대로 적용될 경우 도서상품권제도의 성공적 운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도서상품권이 여타의 상품권과 구별되는 예외성을 갖는다면, 그 예외성에 걸맞는 정부당국의 '특별한' 배려야말로 예외성의 가치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강철주 부장

# 출판저널

통권 제73호/1990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憲玉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鎭  
업무·광고—李燾天 崔炳天 金允淳 金姬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와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편집서평의원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炳翼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遠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橫鍾廈	安秉永
安輝滂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崑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暉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錫	鄭晉錫
鄭鎮弘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顯烈	洪延善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와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1월 3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5호(11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민중서림에서 펴낸 「民衆잇센스國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의 고전적 명저로 꼽히는 책들 가운데 과학 및 기술 분야에 관련있는 것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다음 '가'항의 책이름에 맞는 해제를 '나'항에서 찾아 서로 짝을 지어 주십시오.

### 가. 책이름

- ① 鄉藥集成方
- ② 茲山魚譜
- ③ 書雲觀志
- ④ 五洲書種
- ⑤ 九數略

### 나. 해제

① 조선조 후기의 저명한 천문학자였던 성주덕이 순조18년(1818)에 엮은 책. 천문기상 및 지리를 연구, 교육하는 조선시대의 정부기관에 대한 개괄과 함께 조선조의 천문·지리·역법·시제·기상관측 및 관측기계의 발달과정과 제도적 변천을 아울러 다루었다.

② 연기 어려운 중국산 약재보다는 제 나라 풍토에서 나는 약재를 사용하여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약제민'의 이상 아래 엮어진 책으로, 세종의 명을 받아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 등이 편찬했다.

③ 서유구의 「林園十六志」와 함께 조선시대 과학기술서의 쌍벽을 이루는 명저로 실학자 이규경의 저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에 대한 저자의 박물학적 열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중 조선시대 유일의 화학

기술론인 「박물고변」편이 특히 압권으로 꼽힌다.

④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辛酉教難(1801)으로 흑산도에 유배당해 있으면서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생물 연구서로 모두 155종에 달하는 우리나라 수산 동식물의 분포, 형태, 습성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⑤ 조선 숙종조 소론의 영수로서 최명길의 손자이기도 한 양명학자 명윤 최석정의 저술로 한국고대의 數法과 算學의 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엮어진 책.

### 제71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1호(10월 20일자) 독서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41통, 이중 정답자는 37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문제 1

④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 문제 2

① 김학철의 「격정시대」

### 문제 3

③ 「홍범도」

### 당첨자

오성열(서울시 강서구 화곡 4동 814-14)

문정우(마산시 장군동 2가 1-13)

조은자(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5-13)

백정옥(충남 대전시 중구 문창 1동 105-13 12통 6번)

조진숙(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3동 354-5 동대문구민회관 307호)